

| | |
|------|---|
| 보도분류 | 브리핑() 보도자료 제공(✓) |
| 보도일시 | 2023. 2. 13.(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작성과 | 환경녹지과 |
| 담당 | 과장 유광조, 공원운영팀장 한정숙, 담당 이정님(032-453-7913) |

“달빛공원 수변 단절된 도로 자전거 통로로 개방”

인천경제청, 주민 요청 적극 검토해 결정...내달부터 달빛공원 수변 폐쇄도로 개방
 김진용 청장 “송도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결 ·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송도국제도시 1공구 달빛공원과 8공구 랜드마크 시티 1호 체육공원 일대를 자전거로 가로질러 이동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달빛공원 수변 폐쇄 도로를 개방한다고 13일 밝혔다.
- 이는 최근 달빛공원 수변 임시도로를 편하게 산책하고 자전거로 가로질러 이동하기를 원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검토해 결정한 것이다. 그동안 이 도로는 불법주차,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도심 미관이 크게 훼손돼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 폐쇄된 후 일반 차량 이동이 제한되어 왔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도로 개방에 앞서 공사용 임시도로의 폐쇄 웬스 3개소를 부분적으로 개방, 1.3Km에 대한 자전거 이동 통로를 연결하고, 훼손되고 요철이 심한 바닥면과 경사면 정비, 이용 수칙 안내판, 야간 안전을 위한 반사 테이프 부착 등 현장 환경정비를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하여 김진용 청장은 최근 개방 예정지 폐쇄 도로를 찾아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송도국제도시는 공원녹지가 격자형으로 잘 배치되어 걷고, 달리고,

자전거 타기에 매우 최적화된 도시이다. 앞으로도 단절되고 끊어진 사람의 길, 자전거의 길을 연결시켜 환경친화적인 생태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